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지속

전주시, 지역 K-패스 가입자 전년 대비 7837명 증가·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 점차 확산

중동발 위기로 인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출근·통학 시간대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K-패스 환급 혜택 확대와 혼잡 노선 예비차 투입 등을 연계해 시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버스 이용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이용 부담이 커지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과 더불어 출근·통학 시간대 버스 혼잡 완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전주시역 K-패스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K-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1만 3638명에서 현재 2만1475명으로 7837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7.4% 늘어난 수치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전주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오는 9월 이용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한시 확대에 따라 기본형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률이 기존보다 30%p 높아졌으며, 정액형 상품인 '모두의카드'는 환급 기준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더 많은 시민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시는 이 같은 교통비 지원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자가용 중심 이동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혼잡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출근 수요와 학생 통학 수요가 많은 시내버스 165번과 101번 노선에 예비차 3대를 투입해 아침 시간대 배차간격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전북혁신도시를 경유하는 165번 노선의 경우 예비차 2대가 투입돼 아침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 15분에서 7~8분 수준으로 줄었으며, 주요 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연결하는 101번 노선에는 예비차 1대가 투입돼 배차간격이 기존 25분에서 12~13분

수준으로 단축됐다.

지난 4월 시내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10만2599명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일부 노선에서는 출근·통학 시간대 혼잡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출근길과 통학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특정 시간대에 승객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차내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K-패스 가입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혼잡노선에 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DNA시료채취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권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1일 열린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에서 국방부장관 감사장을 받았다.

국군 전사자 신원 확인 기여 공로

전주시보건소, 6·25전쟁 전사자 시료 채취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DNA시료채취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권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유가족 DNA정보와 비교·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사업 초기부터

유가족 대상 홍보와 DNA 시료채취 업무를 적극 수행해 왔으며, 특히 보건소에서 채취한 유가족 DNA를 통해 실제 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권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1일 열린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에서 국방부장관 감사장을 받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1일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들레홀에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과 기업네트워크 강화로 지역사회 상생 기반 마련에 앞장서 온 30개 기업 대표 및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주시, 30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전주시가 고용 시장 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마다 여성친화기업들을 양성하고 있다.

시는 21일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관장 양희옥) 민들레홀에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과 기업네트워크 강화로 지역사회 상생 기반 마련에 앞장서 온 여성친화기업과 주식회사 가정서 온 호성 전주병원과 주식회사 가정서 온 클리닉, 금쪽같은내부노모네이케어 등 30개 기업 대표 및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실현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이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여성새일인턴 우선 지원과 여성근로자를 위한 전용 시설 환경개선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여성친화기업으로서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지역 내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권희성 기자

서부신시가지 대규모 공한지 주차장 무료 개방

전주시, 312면 주차장 조성

전주시가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부신시가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시는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완산구 효자동2가 일원의 민간 소유 공한지(8386㎡)를 활용해 주차장 312면을 조성해 지난달 29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부신시가지는 아파트 단지과 상가가 밀집한 데다,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주차난으로 끊임없이 몸살을 앓아 왔다. 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시는 서부신시가지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민간 소유의 대규모 유휴 부지를 발굴했으며, 토지주와 공한지주차

장을 조성기로 하는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토지주는 해당 기간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기로 했으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협약 기간 이후에도 상호 협의를 거쳐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시는 지난 1월부터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한지주차장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주차면 312면과 가로등 10주, 투광등 17개, 안

전 관리용 CCTV 3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 총 312면의 주차면 중 절반인 160여 면의 주차면이 평일 상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 시간의 제한 없이 연중무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시 전역에 현재까지 총 82개소(1649면)의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서부신시가지 공한지 주차장 개방·운영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북측에 89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장 점검

중동발 위기로 인한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개시된 가운데, 전주시가 원활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동욱 부시장은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본격화된 동 주민센터 접수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원금 신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접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윤 부시장은 이날 송천1동과 금암동

지원금 발급 장소를 차례로 방문해 신청 절차와 민원 응대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 대기 중인 주민들과 만나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와 함께 윤 부시장은 기간제근로자 등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고 많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치솟는 유가와 물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급 대상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



윤동욱 부시장은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본격화된 동 주민센터 접수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비롯해 홍보와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련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